

謹弔權五熙會長逝去

人稀百歲盡荒城	사람이 백세살기 드물고 다들 저승으로 가나니
康健如公又此程	선생같이 건강하신 분이 또 이 길을 택하셨네
難險世間能立志	어렵고 험악한 세상에서 능히 뜻을 세우셨고
愼謹天下遂揚名	삼가시고 부지런함 천하에서 이름을 휘날렸네
傾誠到處聲譽繼	곳곳마다 정성을 기울여 성명과 예찬을 이으셨고
種德生平壽福迎	한평생 덕을 심으셔서 수와 복을 맞으셨네
羽化登仙無所羨	날개를 달고 신선으로 화하여 부러울게 전혀 없고
四隣仰視後孫榮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니 후손이 영화로우리

始祖 太師公 묘소와 능동재사

(1면에 이어서)	1980년 능동재사의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였으며 1981년 평창공배부인 묘를 평창군 묘에 합꺠함으로써 태사공묘소 춘추향사에 제전을 넓혔다. 1984년 1월 10일 능동재사가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 183호 로 지정되고 구신도비도 지방문화재 로 지정되었다.
	1987년 추밀공과 36세 중앙화수회장 권달안(權達顔)의 주선으로 신신도비각을 중수하였으며 1990년 12월 능동(陵洞) 봉암(鳳巖) 양소 재사중수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2월 능동재사가 100년 동안 남아 중수를 하였다.

1980년 능동재사의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였으며 1981년 평창공배부인 묘를 평창군 묘에 합꺠함으로써 태사공묘소 춘추향사에 제전을 넓혔다. 1984년 1월 10일 능동재사가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 183호**로 지정되고 **구신도비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87년 추밀공과 36세 중앙화수회장 권달안(權達顔)의 주선으로 신신도비각을 중수하였으며 1990년 12월 능동(陵洞) 봉암(鳳巖) 양소 재사중수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2월 능동재사가 100년 동안 남아 중수를 하였다.

1969년 봉우 권태훈(權泰勳)은 능동실기를 국역하여 ‘초역능동실기(抄譯靑陵洞實記)’를 발간하였다.

1972년 재일(在日) 후손들이 모국을 방문하여 구신도비 비각을 중건하고 돌레담장을 쌓았다.

이해 11월 능동 종약소(宗約所)를 안동 권씨대중회(安東權氏大宗會)로 개칭하고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대중회에 관리위원회를 두었다.

1976년 대중회관리위원회를 중무위원회로 개칭하였다.

壬辰倭亂과 幸州大捷

安東權氏 耆老會長 權 貞 澤 忠莊祠 祭奠委員



△행주대첩비와 기념탑

(지난호에 이어서)

(2)기와루

발굴조사 과정에서 상당량의 瓦片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평 파루로 역시 판축성 벽안에서 출토된 것이 대부분이다. 출토된 와편들 중 사방 15cm이상 되는 것들만을 1개체로 인정하여 등부분의 모양에 따라 분류한 결과 모두 536개체분이 확인

되었다. 이 중 格字文이나 線條文 등은統一新羅時代에 대표적인 卍瓦의 등 모양이며, 魚符文이 統一期後期에 나타나는 모양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양별 빈도수를 통해서 본 遺蹟의 시기적인 문제에 일단을 짐작할 수 있겠다.

(3)밧음말

이상으로 행주산성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서 발굴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

2015년 8월 17日 族從 權洪燮 謹稟

지난 8월 15일 作故하신 安東權氏大宗院 廟碑이신 權五熙先生께서는 1921년에 安東 道溪村에서 出生하였는데 12세 때 先考를 여의시고 어렵게 少年시절을 보냈으나 굳은 信念으로 세상을 헤쳐 나갔음으로 일찍이 사업에 기반을 잡아 계속 번창하였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특히 宗事에 대해서는 大小事間 구석구석까지 先生의 성의 깊은 손길 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니, 宗會에 간여하신 분들은 先生의 성명 三字를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많은 덕을 쌓으시고 크게 모범되신 분으로 96세를 누리셨고 유족으로 4남2녀와 내외손 34명이 건재하고 있다.

곡(造火谷) 좌좌(좌坐)언덕에 장사하였다. 아들은 인행(仁幸)이고 벼슬은 낭중(郎中)이며 아들 책(冊)을 넣었는데 책은 스스로 구하여 분부(安東)의 이서(吏胥)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여러대에 걸쳐 자손이 호장(戶長)과 장교(將校)가 되었다. 그후로 자손이 더욱 크게 번창하여 巨조(巨組)가 무수히 연이고 대를 빛내며 서로 바라보듯 끊이지 않았다. 사당(祠堂)을 부(府)에 세우고 공을 제사(祭祀)하는데 김공(金公)과 장공(張公)도 더불어 제사하며 권씨가 대대로 제사(祭祀)일을 도맡아 주장(主掌)하였다.

성화(成化)연간에 평창군사 응(雍-17세) 權密公派)이 진성으로 탐구하여 찾아내 비갈(碑碣)을 세워 표시하였다. 만력(萬曆) 무자(戊子1588년)에 22世 판서(判書)극지(克智-權密公派)가 영남의 觀察使가 되어 宗人을 모아 제사를 지내면서 墓碣이 넘어진 것을 돌을 사들여 다시 세웠다. 가경(嘉靖) 임인(壬寅1542년) 외손(外孫) 김광철(金光徹)이 무사로 와서 묘(太師廟)를 새롭게 지었다. 21世 영의정(領議政) 철(徹-權密公派)이 관찰사(觀察使)가 되어 제전(祭田)을 마련하였고 수호(守戶)를 두었다. 병진(丙辰1556년)에 20世 부사(府使) 소(紹-檢校公派)가 제전을 더하고 1백석의 곡식을 공급하여 이를 수리(首里)로써 권씨 성을 가진 자가 관장하면서 제수에 공여토록 하고 묘역을 다스려 한해에 한 번씩 제향을 올리게 하였다. 계해(癸亥1563년)에는 20世 안동부사(安東府使) 응정(應挺-給事中公派)이 묘(太師廟)에 비(碑)를 세웠다. 만력 계속(癸丑1613년) 24世 길천군(吉川君) 반(昉-權密公派)이 관찰사(觀察使)로 와 묘우(廟宇)를 중수(重修)하고 춘추중정(中丁)일 제향을 올리게 하였다. 계사(癸巳1653년)에 24世 관찰사(觀察使) 우(偶-權密公派)가 묘소 아래에 재사(齋舍)를 장건하고 호구(戶口)를 들어 살면서 지키게 하였다.

기해(己亥1659년) 25世 영천군수 성원(聖源-侍中公派)이 묘소를 전성(展省)하면서 시(誌-24世 權密公派)에게 기록할 것을 촉탁하였다. (하략)

신축1661년 9월24일 한성우윤 권시(權謬)지음. 외에 이조참의 이경휘(李慶徽) 씬. 외에 사헌부장령 허복(許穆) 전(贊)함

하계 살펴보았다. 행주산성은 한강을 뒤

로 하고 한강을 건너 북상하는 세력을 차단하기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성이 위치한 덕양산은 주변일대에서 가장 높아서 주변을 관망하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산성은 해발124.9m의 덕양산에 7-8부 능선에 따라 쌓은 테포식 산성으로 성벽의 총연장은 1km까지 된다. 성벽의 축조방법은 구간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첩비휴게소에서부터 약166m에 달하는 구간은 생토암반을 정리하고 성 내부 쪽에 2단의 기암성벽이 쌓였고 성외부쪽은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는 5-10cm의 두께의 점토와 산흙을 겹겹이 쌓은 판축공법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이 구간의 성벽 기초부 폭은 6.6m에 달하고 높이는 2.8m 성벽정상부에 폭은 2.3m가량 된다. 그다음은 이 판축성벽에 서북단에서 문지 일대에 이르는 160m 구간인데 토점으로된 성벽을 쌓지 않고 자연경사면을 ‘L’자 모양으로 깎아 내어 경사를 급하게 유지하고 깎아낸 면을 성벽의 정상부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벽이 끝나는 지점에서 총장사 사이가 당시의 문지로 추정되는데 조사결과 생토암반을 파고 들어간 배수구가 확인되었으며 문지의 폭은 6m는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현재 대첩비 휴게소가 있는 산

소원록(溯源錄)

서문
<p>아! 일이전(一錢) 어찌에 불과하는 바늘 한 개를 분실하여도 습득하기에 고심하고 거저 얻은 산토끼 한 마리가 달아나면 포획하는데 전심전력하는데 하물며 전 지구로도 바꾸지 못할 가장 귀중한 성권자(姓權字)는 자손만대에 주고 받아 서로 전하고 있으니 권자(權字)로 성(姓)된 역사를 아는 것이 자손 도리에 만만당연(萬萬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이 역사에 전연 몽매한 자 심중팔구로 태연무심(泰然無心)히 한 체도 아니하니 실상범범(尋常凡凡)히 지내니 슬프다. 이 어찌 지중한 성자(姓字)에 대한 정성의 마음 지극히 천소(賤小)한 한 개 바늘 토끼를 취급함에 만만불급(萬萬不及)하니 모름직이 바라건대 동종제씨(同宗諸氏)는 ‘이! 참으로 그러하다. 천등태사(天燈太師)의 혈손으로서 불초 본인이 일상 묵도하는 바 권자(權字)의 성된 이유와 어느 파(派) 어느 공(公)의 몇 대손 됨을 전연 모르는 사람이 거반이상(居半以上)되니 무이타인(無異他人)이다. 과연 권인이 권이 아닌가를 의심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심분통탄한 바 있어 적은 책을 편집하여 권자(權字)에 대한 본의와 고려태조께서 하디문자중(許多文字)에 하필 권자(權字)로 사성(賜姓)한 연유와 시조태사께서 신라 고려 흥상(興喪)할 때 병기달권(病幾達權)하신 전후 사실을 국한문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명랄(名謫) 소원록(溯源錄)이라 하니 일목요연이라. 동성제위(同姓諸位)는 참고비다나.</p>
본문
<p>시조권행(始祖權幸)은 고려 삼한벽상 삼중대광 아보공신 대삼태사(三韓壁上三重大師)이니 공의 본성(本姓)은 김씨라 천덕지상(天德地祥)으로 경주시립(慶州始林)에 감림하신 천손 김알지(金閼智)의 후손으로 신라 중성(中統) 즉 왕손이시니라. 지금(1966년 丙申)부터 1028년 전은 단기 3283년이니 신라 경순왕 삼년 기축년이라 이때에 시조 태사공께서는 왕족 김씨로서 고창(古昌, 지금의 안동)지방을 안무하고 계셨다. 신라 말년 후백제의 권원이 흉악불측한 마음으로 신라 궁중에 침입하여 온갖 물질을 약탈 파괴하고 무소부지(無所不至), 결국은 시왕옥비(弒王辱妃-임금을 죽이고 왕후에 강국(强辱)을 주니 포학의 대표되는 걸주(槩紉-옛적 가장 흉악한 시왕대역(弒王大逆)을 감행하니 관구도착(冠屨倒着)되어 인심이 흉흉하고 산천호물이 무색하며 일월이 무광(無光)하고 황천이 무심하신지라 일조일석에 되놈의 나라로 변하여 예의동방이란 다시 말도 하기가 부끄럽게 불두포본(佛頭拋擲)이 되었다.</p> <p>그러나 권원은 무기와 군인이 총족하고 힘이 강하여 개인이나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대항치 못할 형편이었다. 이때에 고창성주(古昌城主)로 계신 시조 태사공께서 이 흉악무도한 권원의 시역(弒逆)한 사실을 들으시고 마음이 격동충천(激動衝天)하시니 일개 성주의 왕건의사(王建義士)의 부하되어 하루 속히 시역 권원을 섬멸하여 위로 인군(仁君)에 원수를 보답하고 아래로 생민을 구원하여 천하 만고에 뒤흔던 군신대의(君臣大義)를 세우고 국가 만민대계를 튼튼히 수립하면 이름이 분골쇄신되어 죽어도 천만유감이 없겠다 하시었다. 왕건의사(王建義士)는 충의의 마음을 아름다이 여겨 말씀하되 “금시조면이나 우리 양인심사(兩人心事)를 양인지(兩人知)라 어찌면 우리 양인의 마음이 여합부절(如合符節)이라 이렇게 같으뇨” 하시고 서로 전략을 협의하신 후에 정병 수천 명을 거느리시고 권원과</p>

고려 삼한벽상 삼중대광 아보공신 대삼태사라는 지고극귀(至高極貴)하며 지영극에(至榮極譽)로운 관작과 병기달권 사성권(病幾達權 賜姓權) 칠자(七字)를 대서특서(大書特書)하시어 시조태사와 두분 사이에서 수수상전(授受相傳)하시는 모양은 마치 천관(天官)이 지상낙원에 강강하사 구간정재(溝關正載) 무한한 간에 향사운양(恒沙雲仰)이 수수상전하라는 무공무진한 어의(御意)가 함축되어 있으며 육합기간(六合之間)에 영원무궁히 광명을 주는 천등(天燈)같은신 시조 천등태사의 체천행권(體天行權) 지인지덕(至仁至德)으로 득성하신 권자(權字)-자손만대 수수상전하고 있으니 오호성재(於乎盛哉)라, 시랄(詩曰) 전왕성덕(前王盛德)을 물세불망(沒世不忘)이라드니 과연 태조태사의 성덕을 물세불망이라 하노라.

병기달권 사자(四字)에 무한심장환의 미가 포함되어 있으니 <해살-기미(幾微)에 밝아서 권도를 통달하였다는 의미인 데 기미란 것은 사물의 최소근본 분자를 말함으로 권(權)은 저울질할 권자이니 물건의 경중대소를 저울질하여 결정 하듯 왕건거의(王建學義)와 권원시역(甄賞時役)에 대하여 용권정중(用權正中)하신 것이 천하만고 대성인의 도덕적심함에 부합되며 천래적 시국정세에 일치함 > 왕건거의(王建學義)는 인도적 명륜(明倫)하는 양심의 출발이요 권원의 시역은 비인도적 아만말륜(野蠻滅倫)의 행동이니 천지에 응납지 못할 대역이라 천인이 공노하여 하루빨리 섬멸하는 것이 만만당연하니 만일 혹 그렇지 아니하면 반수기양(反受其殃)을 면치 못한다. 이제 경중대소를 천하만고 대성인도덕의리(大聖人道德義理)에 비쳐보건대 빙단(氷炭)의 형세요 천양(天壤)의 판단이 되어 권원의 시역은 우리 인간사회에 용서치 못할 뿐 아니라 무한한 죄악이 남아 있고 일시적 활용남야의 일과 같이 여가든 왕건의사의 행사는 대성인심법중(大聖人心法中)에서 유출된 경천위지(經天緯地)하는 충의라. 무량수(無量數)의 가치가 청천백일이 현출하니 차의파역을(此義波瀾)이라. 이쪽이 지중지대(至重至大)하고 저쪽

성에 정상부에는 장대 등의 시설이 있었을 것이나 대첩비와 휴게소 건물이 세워져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곳에서 서쪽으로 한단 아래의 사방 10m 가량의 평지가 3-4丈 있는데 여가에 파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일부 노출되어 있어 이 일대에도 어떤 형태이든 지상구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나 이번조사에서 확인 할 수 없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11개 기종 186개 체

내약소(囊撈小)한 힘으로 무가내하(無可奈何)라 통분한 마음을 진정치 못하였다. 충의의 기를 들고 만고역적 권원 토벌이라는 격문을 방방곡곡에 드날리며 처부실 계획을 하는지라. 이때에 태사공께서는 동관(同官)으로 계신 김진평(金鎭平)과 장정필(張貞弼) 두 분(후에 함께 삼태사가 되신 분)으로 더불어 최종 결정에 말씀을 하시되 “우리 삼인이 다같이 신자(臣者)의 도리에 천반만반 죽어서라도 군국(君國)의 원수를 보답하여야 만만당연한데 병소력약(兵少力弱)하야 종당어육(終當魚肉)이 될 우리 처치에 백계무책(百計無策)이라.”하셨다. 권원은 흉로점설(紅羅點墨)같이 멸망하고 왕건의사께서는 민민에 추대되어 고려태조대왕이 되시었다.

태조대왕 등극하시니 구름간개 거두고 천천에 백일(白日)이 솟아 천지가 광명한 듯 신천신지(新天新地)에 새 나라를 건설하야 만민에 위문을 나리시고 만조백관에 상벌을 분명하신 후에 특별히 시조태사공을 옥당금석(玉堂錦飾) 위에 부르셔서 어주삼배(御酒三盞) 하시다. 천도(天道)는 복선화음(福善禱至)하시어 선한 이를 복주시고 음흉한 이를 망하게 함은 원래 하나님의 일이고 인군과 나라를 위하는 충의용감심(忠義勇敏心)은 예의 동방에 배양(培養) 있는 우리 조국 신라국민이라 인풍취화격(因風吹火格)으로 하늘과 만민이 합심되어 토벌하니 권원이 아무리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한들 충의 앞에 어찌 감히 대항할소나. 권원은 추풍낙엽이라.

고려 삼한벽상 삼중대광 아보공신 대삼태사라는 지고극귀(至高極貴)하며 지영극에(至榮極譽)로운 관작과 병기달권 사성권(病幾達權 賜姓權) 칠자(七字)를 대서특서(大書特書)하시어 시조태사와 두분 사이에서 수수상전(授受相傳)하시는 모양은 마치 천관(天官)이 지상낙원에 강강하사 구간정재(溝關正載) 무한한 간에 향사운양(恒沙雲仰)이 수수상전하라는 무공무진한 어의(御意)가 함축되어 있으며 육합기간(六合之間)에 영원무궁히 광명을 주는 천등(天燈)같은신 시조 천등태사의 체천행권(體天行權) 지인지덕(至仁至德)으로 득성하신 권자(權字)-자손만대 수수상전하고 있으니 오호성재(於乎盛哉)라, 시랄(詩曰) 전왕성덕(前王盛德)을 물세불망(沒世不忘)이라드니 과연 태조태사의 성덕을 물세불망이라 하노라.

병기달권 사자(四字)에 무한심장환의 미가 포함되어 있으니 <해살-기미(幾微)에 밝아서 권도를 통달하였다는 의미인 데 기미란 것은 사물의 최소근본 분자를 말함으로 권(權)은 저울질할 권자이니 물건의 경중대소를 저울질하여 결정 하듯 왕건거의(王建學義)와 권원시역(甄賞時役)에 대하여 용권정중(用權正中)하신 것이 천하만고 대성인의 도덕적심함에 부합되며 천래적 시국정세에 일치함 > 왕건거의(王建學義)는 인도적 명륜(明倫)하는 양심의 출발이요 권원의 시역은 비인도적 아만말륜(野蠻滅倫)의 행동이니 천지에 응납지 못할 대역이라 천인이 공노하여 하루빨리 섬멸하는 것이 만만당연하니 만일 혹 그렇지 아니하면 반수기양(反受其殃)을 면치 못한다. 이제 경중대소를 천하만고 대성인도덕의리(大聖人道德義理)에 비쳐보건대 빙단(氷炭)의 형세요 천양(天壤)의 판단이 되어 권원의 시역은 우리 인간사회에 용서치 못할 뿐 아니라 무한한 죄악이 남아 있고 일시적 활용남야의 일과 같이 여가든 왕건의사의 행사는 대성인심법중(大聖人心法中)에서 유출된 경천위지(經天緯地)하는 충의라. 무량수(無量數)의 가치가 청천백일이 현출하니 차의파역을(此義波瀾)이라. 이쪽이 지중지대(至重至大)하고 저쪽

이 지역지역(至惡至惡)됨이 명약관화하니 비록 탕무공평(湯武孔孟)이 다시 나서도 다른 처판(處判)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고려태조와 시조태사공은 하나님인 인도사 천원의 도덕의리로 만나심이라. 인군과 나라에 전후후무한 극악변란을 당하사 전후무계(前後無稽) 합리한 것이 과연 권원후(權然後)에 지경중(知輕重)으로 불변불의하며 무과불급하야 지극히 정당한 중화지도(中和之道)에 합치되신지라. 태조 이에 오직 천하지성(天下至聖)이라야 능행(能行)하는 권자(權字)로 사성하사 자손만대 수수상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우며 고결한 지중지귀한 권자인가. 고려태조의 지인지덕(至仁至德) 아니면 이에 지당한 권자(權字)를 연출(研出)치 못하였을 것이요. 시조태사공의 지인지덕 아니면 지당한 이 권자를 받을 분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 불초무상(不肖無象)한 것이 명창정범(明窓靜凡) 앞에 단공위좌(端拱危坐)하야 독공극근(篤恭極謹)하는 마음으로 시조태사공의 위대한 공덕을 생각하오매 태산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 공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해(每海)가 마르지 아니하면 그 덕이 없어지지 아니 할 것이요 일월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 빛이 민멸(泯滅)치 아니하야 여천지무공(與天無窮)할 것을 감도하는 중 차창에 옥돌(玉珣)하든 태양빛은 어느덧 오정이 됨을 잊었다.

이제 성경현전(聖經賢傳)의 말씀을 인용하야 권자해설에 충당하건대 공자 왈 가여입지(可與立志)도 미가여적도(未可與適道)며 가여적도도 미가여권(未可與權)이라 하시고 공자께서 사람의 인품 상하를 말씀하시되 가히 더불어 상등(上等) 모범이나 사람이 되겠다고 뜻을 세웠어도 가히 더불어 같이 도(道) 지경에는 가지 못하며 또한 공부가 상진(上進)하야 도 지경엔 갔어도 가히 더불어 때맞춰 권(權)은 정중(正中)하게 쓰지 못한다 하시고 정자(程子) 왈 자한(自漢) 당 이래로 무인식권자(無人識權者)라 하시고-송나라 대현 정자 말씀에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로 문장과 명현이 많이 있어도 권(權)을 행(行)치 못한 것은 물론이고 권이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었다 하시고- 주자(朱子) 왈 권자(權者)는 성인지대용(聖人之大用)이니 비성인(非聖人)이면 불능행(不能行)이라 하시고 우왈(又曰) 비제천행도자(非體天行道者)면 불능행권(不能行權)이라 하시었다.-공자 후 일인 되시는 송나라 대현주자(大賢朱子) 말씀에 권은 성인의 대용(大用)이니 성인이 아니면 능히 행치 못한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도를 행하는 자 아니면 능히 권을 행치 못한다고 하셨다.

이상 삼성현(三聖賢)의 말씀에 의하여 보건대 태조태사께서 지인지덕으로 득국득성(得國得姓)하시사 자손만대 수수상전하여 여천지 무공할 것을 다시금 만만감모(萬萬感慕)하고 서(書)에 왈 무념이조(無念爾祖)야 을수결덕(修飾厥德)이라 하니 아이제중(我我諸宗)은 연지다소(年之多少)와 행지고하(行之高下)를 막론하고 선조에 대하여 무비자손(無非子孫)이니 영육양계(靈肉兩界)에 극성극근(克誠克勤)하야 무정결조(無忝厥祖)에 각자경성(各自警省)하심을 천만절양절양(千萬切切叮叮)

권지(權之) 1027년 병신 4월15일 34세 손 주환(柱畵)군

부록：태사공의 묘소 (安東府西後面天燈山南造火谷子坐)
태사공의 배위(配位)는 신라국 왕족 밀성박씨(密城朴氏)시니 이조(李朝) 단종대왕의 외조(外祖)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휘(諱) 전(傳)의 친필가계(親筆家牒)에 밀성박씨(密城朴氏)라云

후기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행주산성은 임진왜란당시 행주대첩의 격전지로 잘 알려져 왔으나, 조사결과 그보다 훨씬 전인 통일신라 시대에 축조되었으며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한 것이 6세기 중반 경부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행주산성의 축조연대는 대략 6-8세기경으로 비정할 수 있겠다.	
〈 글 〉	